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53호(99/5/20)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한번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그림으로 담아보세요.

〈귀국 인사〉

'미국의 인권관'에 대한 고민을 짊어지고...

류은숙(인권교육실장)

사랑방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4개월간의 뉴욕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 인권교재 집필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린 채 훌쩍 다녀왔습니다.

제가 참가한 프로그램은 콜롬비아대학 부설 인권연구소가 운영하는 '인권옹호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14명의 활동가들과 어울려 매주 두 차례의 세미나를 하고 기숙사의 이방 저방에 모여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디시에 있는 40여 개의 국제인권단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콜롬비아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면서 리포트 제출과 발표준비에도 중간시험을 치르느라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느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학교 곳곳에서 열리는 토론회도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밤이면 리버사이드파크와 허드슨강이 내려다보이는 기숙사 방에서 스탠드만 켜놓고 책읽기를 즐겼습니다.

인권의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의아했던 것은 '미국의 인권관이나 인권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법대의 교수진이나 수없이 방문한 민간단체들이나 주변의 미국 학생들 중 그 누구도 미국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국제인권법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 기준을 무시하려 드는 미국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도서관을 뒤지고 신문 스크랩을 하면서 미국이 말하는 인권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틈을 내서 '미국의 인권'이란 글을 써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몇몇 동료들은 '사랑방'이란 이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통하는 핫라인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sarangbang@'로 시작되는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사랑방에 앉아 세계 곳곳에서 날아오는 '사랑방' 명의로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 행동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방 명의로 성명서를 내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특히 미국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나서자고 했지요. "우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고 웅변하는 토론회를 본 후 결의했지요).

위험하고 혼란한 자국의 환경 속에서도 곳곳한 태도를 가진 동료들에게서 활동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면 몇몇 참가자들이 지닌 1세계에 대한 비굴한 자세는 제 자신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인권을 이용해 먹고살겠다, 출세하겠다'는 욕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상반되는 모델 속에서 인권 활동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고 간단한 고별파티를 하는 날, 저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남길 기념품으로 참가자들의 공동앨범을 편집했는데, 그 책임자인 저는 동료들의 부추김으로 모든 참가자들과 교수진의 캐리커처를 그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 그림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 둘씩 기숙사를 떠나갈 때마다 눈물 속에 포옹하는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복사물을 잔뜩 짊어지고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사랑방 일을 다시 시작하니 뉴욕의 기억은 저 멀리 사라졌지만, 고민했던 주제들은 계속 간직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 업 / 보 / 고

(99년 4월 다섯째 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칠레전투> 두 차례 상영회 가져 4회 인권영화제 준비 착수

3회 인권영화제의 화제작 <칠레전투> 보급에 때 맞춰 열린 두 차례의 상영회가 5월 8, 1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과 서울의대 강당에서 주말에 열린 상영회에는 영화제 당시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번의 상영회에는 <칠레전투> 전편을 보기 위해 약 1백명 정도씩의 관객이 찾아와 늦은 시간까지 감상했습니다. 영화 상영회에는 1부 부르주아지의 봉기, 2부 쿠데타, 3부 민중의 힘에 이어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까지 중간에 약 10분씩의 휴식 시간을 두고 밤 10시 넘도록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간에 맞춰 '전 세계 학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는 부제로 열린 이번 상영회에는 연세대 교육 동아리 열음과 목하회, 서울의대 간호대 인권동아리 나무가 함께 했고, 영화제 때와 마찬가지로 자원활동자들이 굳게 결합하여 치뤘습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전편 감상에 5천원씩의 관람료를 받았고, 이와 함께 <칠레전투>와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을 판매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비오는 가운데 열린 상영회를 통해 <칠레전투>를 다시 보고자 했던 관객들에게 전편을 한번에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고, 아울러 비디오 보급을 적극 홍보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번 상영회를 계기로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었고, 각 단체의 기관지에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칠레전투> 공식 출시 보름만에 27질의 비디오 테잎을 판매했습니다. 비디오 테잎은 <칠레, 지울 수>까지 포함하여 각 편당 3만원씩 12만원에 보급하고 있으나, <인권하루소식> 독자, 3회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에게는 4편을 10만원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레전투>는 70년대초반의 남미에서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도 감명깊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구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테잎 구입은 사무실 김정아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4회 인권영화제를 위한 준비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영화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일단을 행자부에 제출했던 프로젝트를 통해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준비금 정도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또한, 실무자로 양숙희씨와 성동철씨가 결합하게 되어 김정아씨와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영화제 담당자들은 지금부터 장소 섭외와 작품 목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4회 인권영화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권 보고서 작업 중간점검 MT

<IMF와 인권: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권 운동의 대안 모색>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작업 중간점검을 위해 지난 15일 MT를 다녀왔습니다. 수유리 문익환 목사님 생가인 '통일의 집'에서 가진 이번 MT에는 사무국장과 최은아 총무와 사회권위원회 소속 자원활동자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MT는 사회권에 대한 공동의 인식 마련과 보고서에 대한 공통의 상, 각 분야별 점

검과 교통정리 등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 이번 보고서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신자유주의 이후 생존권을 중심으로 내용과 흐름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회권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각 분야별 상황에 대한 인권 또는 사회권적인 재해석이 이번 보고서의 중심적인 기조가 된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회권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작업은 이번 보고서 작업을 통해서 사회권 분야에 대한 인식을 갖춘 초보적인 활동가를 키워내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권운동을 개척,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작업은 각 분야별 초안의 보완, 현장 실태 조사 작업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초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권위원회에서 잡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글; 문제 제기-왜 우리는 지금 사회권을 이야기하는가?/1. 사회권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결과들/3. 사회적인 권리 범주에 속하는 각 분야 실태(빈곤, 노동, 복지, 교육, 의료, 주거, 여성, 아동, 노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문화, 환경 등)/4. 사회권 운동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하철 인권침해 현장조사 실시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사랑방은 지하철 인권침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4월 26일 이후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한 공사측의 소명서 제출 강요, 사소한 말다툼까지 이른바 '왕따사범'으로 몰아 징계와 구속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노조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는 중이

라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조원들이 사랑방을 찾았고, 이들과 상담하는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조사작업은 소명서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노조원들에 대한 인터뷰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798명이 응했고, 조사기간 동안 70여명의 조합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원활동자들을 주축으로 사무국장 이 팀장을 맡아 진행한 조사작업 과정에서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지하철 노조의 현실과 그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측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0개 단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결집

지난 4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인권법 공추위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4월 29일 노동·여성·장애인·인권 등의 기존 공추위에 사회운동·종교·언론·교육·환경·빈민·청년까지 망라한 70개 단체들이 공대위로 결집하였습니다. 공대위는 민간단체법률안이 확정 되는대로 국회에 입법청원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안의 일방적인 통과를 저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인 국가인권기구 설립운동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나 설명회 등을 조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법안을 확정짓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는 민간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서준식 대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배경내씨가 공대위 사무국 간사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7일 인권법안 공청회를 갖습니다. 국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

에서 본격적으로 인권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시법 개악, 6월 1일 공청회 예정

집시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는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았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통해서 그 내용과 상황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집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자체를 몰라서 5월 3일 집시법 개악 움직임에 항의집회를 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제 국회의원들조차도 자신들이 집시법 개정법률안에 찬성을 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하루소식> 기자 등이 곳곳을 찢어서 확인했던 결과는 4월 27일 행자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정확한 의정감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이를 늦게 알게 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악하는 분위기였지만, 공동성명서 한 번 나온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IMF 국본 주최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서는 6월부터 월간 국보법 신문을 발간하기로 하고 준비중입니다. 편집위원장은 서준식 대표가 맡게 됩니다. 또, <김대중 정부 1년간의 국가보안법 운용 사례 보고서>를 5월 22일경 펴내게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변화/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사면복권과 양심수/준법서약서의 반인권성/보안관찰의 문제/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 의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보고서를 구입하시

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캠페인팀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소식지 편집팀과 국제연대팀 등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에 사랑방이 분담금 65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상근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안이 제기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천년 서울 아셈(ASEM)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96년 태국 방콕, 98년 영국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서 열리게 되는 아셈회의에 맞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민간단체들은 각 분야별로 2천년 인류의 과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들을 다지게 됩니다. 서울 아셈회의의 민간측 중심의제는 '평화와 인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측 민간단체 준비위원회는 인권, 평화, 여성, 노동, 환경, 농어민, 문화, 청년, 학생 등의 분야의 단체들을 총망라하여 6월초 결성됩니다. 사랑방도 이 준비위원회에 적극 결합하여 인권분야에서 각 단체의 참가를 추동하고, 사회권분야의 인권의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은 신문 스크랩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문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것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여 사무실 기금에 쓰려고 합니다. 한편, 인권정보자료실에서 '인권정보 인프라 구축'을 프로젝트를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재분배재단에 이를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에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사건), 박동운(고정간첩단사건), 함주명(월남자사건)씨등 6명의 보안관찰 처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랑방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벌이고 있는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이 소송은 민변의 임영화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후에도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해 사랑방은 노력할 것입니다.

□ 자원활동자 모임인 <인사동>은 지난 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심검문캠페인을 전개한 데 이어 21일 신촌에서 다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인사동>은 이후에도 자체 내의 캠페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사동>은 격주로 사랑방의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 영화감상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모임에서는 서대표님의 진보적 인권운동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 인권교육실 배경내씨는 '전북 평화와인권 연대'에서 지난 6, 7, 12, 13, 14일 등 5일 동안 열린 '전주인권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30명 가량의 교육생들은 배경내씨의 강의가 매우 감명깊게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6월말경 자활자와 대학생 인권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개적인 인권강좌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 제네바에서 연수중인 이주영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주영씨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니터를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를 방문하여 사회권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고, 오는 6월 1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 인권교육실장 류은숙씨는 4개월간의 미국 콜롬비아대학 부설 인권연구소가 운영하는 '인권옹호자 훈련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앞의 귀국인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기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류은숙씨는 인권교육실과 인권하루소식 일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 집안 사정으로 24일부터 학원강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다시 바쁘게 뛰는 슈퍼우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무국이 6월부터 역할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역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인권하루소식>은 박래군 사무국장이 편집책임을 맡고, 류은숙, 류점렬, 유해정씨가 배치됩니다. 자유권위원회의 김정희씨는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으로 파견을 보내고, 인사동 대장인 고근예씨에게 연수자격을 부여하면서 자유권위원회에 배치하게 되며, 제네바에서 돌아오는 이주영씨를 사회권위원회에 배치합니다. 인권교육실에는 류은숙씨와 배경내씨가 배치되어 인권교육의 내용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는 이동이 없이 지금과 그대로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맹활약해온 이창조씨가 6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게 됩니다.

□ 지난 1월부터 연수생으로 근무해온 김정희, 유해정씨가 연수를 마치고 상임활동가가 되기 위한 최종적인 인준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정아씨와 류점렬씨도 곧 연수생 딱지를 떼고 상임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연수생에게 상임활동가 자격 부여는 상임활동가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며, 연수가 끝날 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대학생들의 인권모임이 간담회를 계속 가지면서 인권현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합니다.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인권관련 동아리나 모임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오는 29일 간담회를 갖게 됩니다.

<자료>

민주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집시법 개악을 철회하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적 자유와 권리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에도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제 37조 “기본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왔다.

실제, 역사적으로 정권은 독재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악용해 왔고, 이를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과 학생들을 매년 수천명이 넘게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내었다.

한편, 정권도 정권의 위기가 올수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강화해 왔고, 현재도 “신고제”로 되어 있는 있으나 실상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많은 비판과 항의속에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정권은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4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하에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개정안 제 8조에 보면, “타인의 거주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 통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나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 제 12조에서 그동안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되어 왔던 “질서 유지선을 관할 경찰 서장의 판단”에 따른 통보사항으로 하였고, 제 21조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 유지선을 이탈하거나 넘어설 경우 6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토록하여 경찰 서장의 권한을 확대·강화하였다.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 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를 위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언론통제 수단인 공보처를 부활시키기 위해 국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고 급기야 김대중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을 가로막고, 반민주적 악법과 기구를 부활, 강화시켜 민주적 기본 제 권리 조차 앗아가려하는 김대중 정부는 전 국민을 유린하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만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악된 집시법에 맞선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5월 13일

생존권 쟁취 · 사회개혁 · 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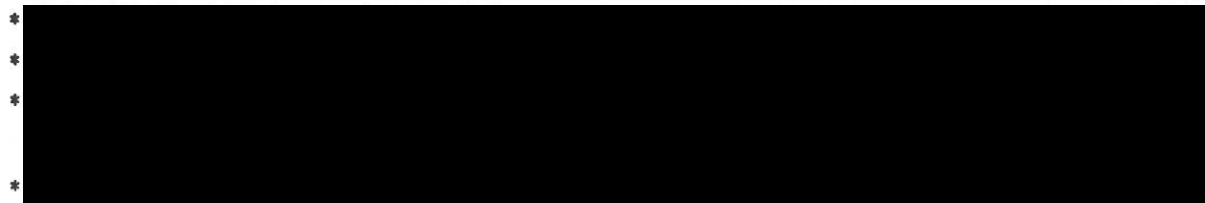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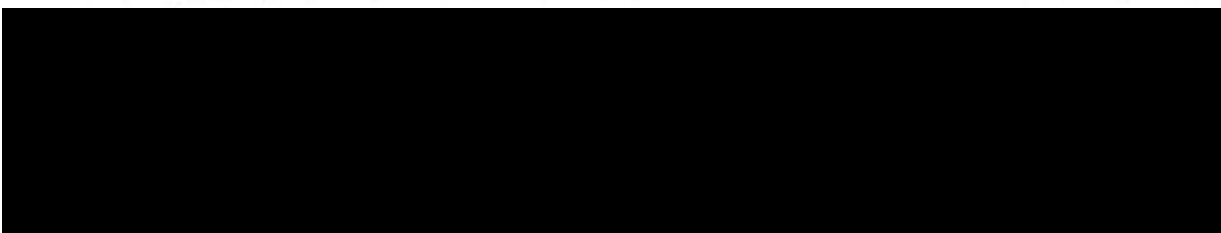
99년 4월 재정보고

(99년 4월 16일 - 5월 15일)

전기이월: -12,996,388 원

수 입	지 출
회비 2,157,300	활동비 3,700,000
구독료 2,592,600	우편·발송비 627,930
사업수익 1,850,420	사무비품비 207,200
- 자료 복사·판매 367,270	사무실유지비 1,032,660
- 강연·교육·원고 595,000	간행물구독·자료구입비 50,000
-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65,900	통신·전화비 1,247,050
- 인권시평 배급료 480,450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110,000
- 「합본 11호」 판매 309,900	복사·제본비 208,100
- 불심검문 자료·카드 판매 31,900	식비 304,680
후원금 878,530	출장비 37,000
기타 621,000	불심검문캠페인 34,400
	운송비 81,000
	기타 14,500
수입총액: 8,099,850원	지출총액: 7,654,520원
최종결산: -12,551,058원	

<4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구좌 안내>



지 도: 7618848

예금주: 서준식